**호세아** 8-27-2018

**제목과 배경**: 저자인 선지자 호세아(‘구원하다’라는 뜻, 여호수아와 같은 어원에서 옴)의 이름을 딴 것으로, 호세아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 약 38년간 사역한 선지자다 (1:1, 주전 760-722, 이사야, 아모스, 미가 선지자들과 동시대). 앗수르가 주전 733년에 침략하기 시작해서 주전 722년에 수도 사마리아가 함락되고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갔다 (열왕기하 17장).

**저자와 기록연대**: 선지자 호세아는 주전 8세기 후반에 사역하였는데, 이때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어려웠던 시기였고, 북왕국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통치(주전 753) 후 이스라엘 멸망(주전 722) 사이에 기록된 것으로 보인다. 선지자 아모스는 하나님께서 이름을 밝히지 않은 나라를 사용하시어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예언했었는데, 호세아는 그 나라가 앗수르임을 밝힌다 (7:11, 8:9, 10:6, 11:5,11).

**기록목적과 주제**: 전반부에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자기 백성에 대한 메시지를 호세아의 결혼을 통해 상징적으로 보여주는데, 언약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그들이 아무리 자주 방황(우상숭배)해도 그들을 회복하시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신다. 후반부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우상숭배를 했는지를 상세히 묘사하면서 회개를 촉구한다. 멸망을 피하는 유일한 길은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것이다. 주제는 이스라엘의 불신앙과 완고함, 그리고 이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묘사한다.

**개요**

1. 부정(불신실)한 아내와 신실한 남편 (1-3장): 이스라엘의 패역에 대한 자서전적 비유
2. 자녀의 상징적 의미 (1:2-2:1)
3. 부정한 아내 (2:2-23)
4. 이스라엘의 심판 (2:2-13)
5. 이스라엘의 회복 (2:14-23)
6. 신실한 남편 (3장)
7. 불신실한 나라와 신실하신 하나님 (4-14장): 고소, 징계, 회복
8. 이스라엘의 불신앙 (4:1-6:3)
9. 이스라엘의 징계 (6:4-10:15)
10. 여호와의 신실한 사랑 (11-14장)